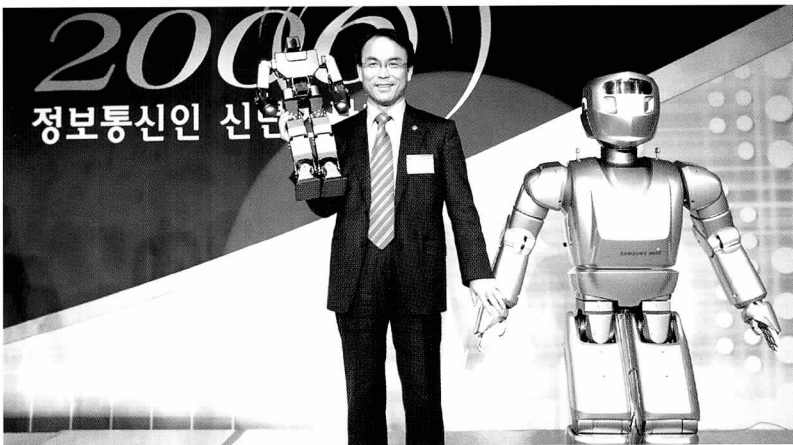


정보통신 31개 기관 공동주관

2006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3일 저녁 6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06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1개 정보통신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하고 정보통신인들 간의 결의를 다지는 신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실국장을 비롯하여 윤동운·경상현·남궁석 등 전 체신부·정통부 장관과 정홍식·김창곤 등 전 정통부 차관, 서상기·강성종·서혜석·홍창선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참가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남중수 KT사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조영주 KTF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박문화 LG전자 사장, 박병엽 팬택&큐리텔 대표이사 등이, 언론계에서는 이창호 아이뉴스24 사장, 안국정 SBS사장, 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해 신년 하례와 더불어 CDMA 세계 첫 상용화 10주년을 축하했다.

본 협회 이기태 회장(삼성전자 사장)은 개

회사를 통해 “올 해는 고유가와 원가 강세로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지만, 모바일 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을 조기에 달성하고 3만불 시대를 이끌 가장 유망한 산업인 만큼,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자”고 말했다.

또 진대제 장관은 “CDMA를 10년 전에 과감히 도입한 것과 4년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한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만들어진 게 IT가 성공한 요인”이라며 “CDMA 성공신화를 발판으로 글로벌 모바일 1등 국가가 되기 위해 모바일특구, 기술경쟁우위 확보 등 5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M-1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통부의 '모바일 일등국가 비전 선포 영상물' 상영에서는 ▲ 차세대 모바일 환경 구현을 위한 모바일 특구 구축 ▲ 저렴하고 안전한 모바일 환경 조성 ▲ 글로벌 모바일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경쟁 우위 확보 ▲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창출 환경 구축 ▲ 모바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양 조성 등 'M-1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이 방영됐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정보통신 관계자 약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문의 : 대외협력팀(02-580-0566)

제19회 정기 총회 개최 '2006년도 사업계획' 발표



협회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기태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1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IT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회원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정보통신산업계 대표단체로서의 협회 위상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협회는 연초 변화와 혁신을 위한 워크샵 이후 향후 비전과 핵심실천전략을 발표하는 등 변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회원사의 날을 지정하여 회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의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이끌어갈 사업은 크게 회원지업 사업, 회원협력사업, 고객지원, 단말기 관리, 정보보호, 벤처

창업지원, 조사통계사업, 산업활성화사업 등 8가지.

먼저 회원지원사업으로는 정보통신의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 회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체계를 갖춘 방침이다. 협회는 정보통신산업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고, 주요국 기관 기업과 회원간의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건의를 통해 회원의 권익신장, 포탈정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통신 관련 산하기관 공동주최로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으며 정보통신부 정책 및 주요 IT업체 사업전략 및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IT전시회 통합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시 주최자간 합의 도출 후 IT통합전시회 전담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홍보 및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회원협력사업으로는 중소정보통신기업 해외 IT전시회 지원사업, 해외 IT협력단 파견사업, 글로벌 수출협력, LBS산업협의회 운영, FTTH산업 활성화 사업, 국내 ASP기업의 해외진출 협력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벤처창업네트워크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객지원으로는 정보통신 요금미납자 공동관리사업,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운영, 국제Fraud호 공동관리 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분실단말기 관리사업도 대국민 홍보 강화, 습득신고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을 통한 회수율 증대, 분실핸드폰 습득망 유지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정보보호에도 역점을 두기 위해 협회는 정보보호마크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 및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계획 중이다.

한편 협회는 IT통계 집중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입안 및 관련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해 지원하는 조사통계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 과제 수행, 타부처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기능 확대를 위한 MOU체결, IT품목별 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한다.

벤처창업지원도 강화한다. 협회는 IT분야의 창의적 벤처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 지원을 통한 벤처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벤처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활성화사업에서는 e-Biz 활성화 연구를 위해 e-biz ASP 공동 사업 설명회 및 운영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부설 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그간의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되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올해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IT인력사업 등 전문IT인 양성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했다.

○ 문의 : 경영기획팀(02-580-0562)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 겸 KAIT 회장 “내 손 안의 큰 세상” 강연



한국IT리더스포럼사무국은 1월 정기조찬회를 지난 1월 17일 오전 7시 30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1월 조찬회에서는 이기태 사장이 연사로 초청돼 ‘내 손 안의 큰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사장은 강연에서 “와이브로·4G는 삼성 휴대폰의 미래이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와이브로가 3G, 4G의 중간단계이다”라며 “와이브로가 좀더 발전하면 와이브로가 곧 TV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 방송국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장은 4G 이동 통신에 대해서도, “어차피 IT 비전은 4G에 있으며, 삼성은 3G LET 표준화에도 적극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약 40분간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삼성의 성공비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성공이란 말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삼성의 기술자들이 노력하여 만든 물건을 제 값 받고 수출을 하는 것 뿐”이라고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 길이 우리의 기술자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설파했다.

○ 문의 :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02-580-0534)

올해 국내 LBS 시장 8,500억원 전망 - LBS 기술 및 시장현황 연구 보고서

전년 대비 50% 급성장 예상

협회 산하 LBS산업협의회는 국내외 LBS산업 동향을 조사·분석한 「LBS 기술 및 산업 현황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월 1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선인터넷 시대의 차세대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LBS)의 국내 시장규모가 전년도 5,655억원에서 올해 8,50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07년에는 1조원을 넘어서고 2008년에는 1조 7천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LBS산업협의회가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LBS 관련업계 89개사를 대상으로 LBS 산업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올 해 분야별 매출 전망을 살펴보면 단말기 등 기기분야가 3,90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가 41%, 시스템이 8%, 기타가 5% 순으로 뒤를 이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성장은 GPS 기반 단말기의 보급률 증가와 이동통신사 등 유·무선통신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각 분야별 성장 추세를 비교해 보면, 단말기 등 기기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균등하고 지속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폭이 급상승해 2008년에는 LBS 매출액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부 서비스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교통/항법 서비스 분야가 2005년 전체 서비스 매출 분야의 46%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친구찾기 등의 위치추적서비스(17%), 물류추적 등 B2B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다. 2006년에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물류추적 등 B2B서비스가 급성장, 전체 시장의 30% 가량을 점유해 교통/항법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매출분야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안전 및 보안 서비스'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하고, '광고 및 상거래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역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2006년에는 네비게이션과 친구찾기 위주의 서비스 편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확대가 본격화될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 약 200페이지 분량의 'LBS 기술 및 산업 현황 연구 보고서' 전문은 LBS산업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lbskorea.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볼 수 있습니다.

o 문의 : 정보화기획팀(02-580-0532)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2006년 경제 및 IT산업 전망과 기업의 대응”



한국IT리더스포럼사무국은 2월 정기조찬회를 지난 2월 21일 오전 7시 30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2월 조찬회에서는 LG경제연구원 이윤호 원장이 '2006년 경제 및 IT산업 전망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 “올해 TV·휴대폰 등 대부분의 IT 제품에서 가격급락이 계속되면서 기업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강연을 전개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기업은 고부가가치화 노력과 함께 제품 설계 단계부터의 근본적 원가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2003년 이래 성장률이 5%

대 이하로 추락, 총 매출은 30조원대에서 담보 상태가 지속됐다”며 “현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IT기업은 신제품 개발, 디자인 향상, 브랜드 제고, 맞춤형 생산 등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IT리더스포럼 3월 정기조찬회는 3월 21(화)에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되며, (주)KT 남중수 대표가 강연할 예정이다.

o 문의 :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02-580-0534)